

[실무수습가-해외로펌(일본)]

무한한 엔터테인먼트시장의 잠재력

이 서 영

- (경북)성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I. 들어가며

1. 바스코 다 가마 회계법률사무소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이하 '바스코 다 가마')는 일본 국내의 민·형사 사건은 물론이고 저작권, 특허권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입니다.

'바스코 다 가마'라는 명칭은 포르투갈의 탐험가의 이름을 따 온 것으로, 진취적인 정신으로 법률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담당하셨던 카타오카 변호사님은 한국기업의 일본자회사나 지점 등의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주로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과중한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실습을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으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로의 첫 실무수습이 시작되던 날, 카페같은 예쁜 인테리어와 조명을 보면서 신기해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특히 입구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얼굴을 형상화한 로고가 붙어 있던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빌딩의 2, 3층은 변호사님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4층은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1층은 도서관이었는데 저희는 주로 이곳에서 2주간을 지내며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 지원동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무렵 해외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바스코 다 가마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학부 때부터 조금씩 일본어를 공부해왔던터라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스코 다 가마에 다녀오신 선배님과 동기들로부터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난 후 실무수습에 지원하고자 하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3. 선발과정

바스코 다가마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내부선발과정을 거쳐 로펌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로펌측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스코 다 가마와 이렇게 결연을 맺은 학교는 수도권외의 3개 학교 정도로 알고 있으나 관심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습은 저를 포함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 그리고 일본 와세다로스쿨생 1명이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수습받는 인원은 유동적인 편이고 실습을 받는 원생들의 성향에 따라 분위기도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건국대 로스쿨생은 물론이고 와세다로스쿨의 학생과 같이 수습을 받게 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서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많은 교류를 하였습니다. 해외실무수습의 특성상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에 비해서는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II. 실습내용

바스코 다 가마에서의 실무실습은 크게 외부방문일정, 재판소견학, 과제수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습은 외부방문일정으로 2주간의 실습기간동안 거의 매일 한 두 번의 방문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방문대상은 주로 로펌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많은 정보를 얻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로스쿨생들을 위해 미리 방문일정을 잡고, 직접 기업을 함께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텐데도 직접 우리를 인솔해주시고 이동시간에도 짬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1. 엔터테인먼트 기업방문

대부분의 기업방문이 유익했지만 개인적으로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군데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 CJ빅터

CJ빅터는 한국의 CJ E&M와 일본의 음반제작사인 빅터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입니다. CJ빅터의 유명민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음반관련 사업에서 활동해오신 과정과,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현재 음반시장현황과 저작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저작권은 음원 사용에 관한 권리인 마스터권과 음원 배포에 관한 권리인 퍼블리싱권을 포괄한 개념이고 음반업계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권리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을 비롯한 해외음원의 경우 이 둘을 구분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외국 뮤지션의 음악을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아야만 합니다.

한국은 음반업계 종사자조차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법률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향후 관련 사건을 맡게 되거나 계약서를 검토할 경우 어떤 부분들을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일본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일본기업문화의 특징들을 설명해주신 점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수십년 간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겪으신 점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 애쓰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매니지먼트사와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일본기업의 대표로 한국인이 나오니까 한국식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오히려 더욱 철저히 일본 음반업계의 규칙과 계약관행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내가 맡게 될 의뢰인이 어느 쪽인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기업에 특성에 대한 파악도 필수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지사 중 가장 오래된 일본사무소는 한국콘텐츠의 일본 진출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한일의 콘텐츠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사무소의 소장님이신 이영훈 소장님을 만나 뵙고 주로 게임산업을 위주로 콘텐츠시장의 이모저모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산업에 문외한이었지만 우리나라 게임콘텐츠의 해외시장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콘텐츠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을 하고자하는 열망은 있으나 국내에서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게임산업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CCC(Culture Convenience Club Co., Ltd)

한국드라마가 일본에 수출될 경우 츠타야의 DVD랭킹은 그 성공을 가능하는 척도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 DVD시장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데, CCC는 일본 국내의 DVD대여시장 점유율 1위인 '츠타야'라는 DVD대여점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한국드라마 DVD제작 및 유통회사입니다.

우리는 CCC의 한국드라마 수입 및 배급책임자인 요시무라 상품본부 상품개발부장님을 만나 일본의 DVD시장현황과 한국드라마의 수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드라마를 수입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 파생 권리에 관한 한·일 양국의 관점차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 재판소견학

바스코 다 가마의 위치는 도쿄중앙지방법원과 가까웠습니다. 덕분에 2주 간 총 3번의 방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주차에는 무라세 변호사님, 나카노 변호사님과 함께 민사사건 1건, 형사사건 1건을 방청하고 2주차에는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조정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본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재판원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원재판은 총 9명(판사 3명, 재판원 6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원들이 나란히 배석하고 예비배심원이 그 뒤에 위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평결에 구속력이 없지만,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합의부원 9명의 과반수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결정되고, 피고인이 재판원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전부 재판원제도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침 우리가 방청했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원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전부를 알아듣기는 힘들었으나 전반적인 절차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정신문이 진술거부권 고지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일본은 피고인의 인정신문이 먼저 진행되는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2주차에 참여했던 조정사건이 끝나고 법원 바로 옆에 있는 변호사협회도 잠깐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일본의 경우에도 변호사 약 4만명 중 2만명이 도쿄에 등록한 상태로 한국처럼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쿄변호사협회에는 세 개의 지부가 있으며 기존 회원변호사의 추천 없이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 현재는 그 비용이 많이 낮아졌지만 변호사님께서 가입하실 때만 해도 가입비가 매우 비싸서 일시불로 지불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여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과제

실습시간동안 두 번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는 공동으로 토론을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매주 목요일에 제출해서 카타오카 변호사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 금

요일까지 최종수정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기업 방문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면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주 과제는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실명보도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언론의 운용실태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조각사유에 대해 한·일 양국의 판례를 찾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주의 과제는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관련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법조문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2주차 과제를 수행하면서는 마침 오다이바에 있는 후지테레비 본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외신보도국의 디렉터이신 키타가와씨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계 내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나 가치판단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키타가와씨는 외신뉴스를 보도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쟁점 및 사전검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언론의 정보전달의 목적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4. 연구회 참석

바스코 다 가마에서는 격주로 회사법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교수, 법조인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 등을 소개하는 연구회였는데 감사하게도 실습생들에게도 참관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쟁점을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여 빠짐없이 이해하기는 힘들었으나 회사법의 최신 이슈에 대해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양질의 자료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구회가 끝나고 나서는 회원들과의 저녁식사에 초대가 되어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 회계사님들을 통해 기업금융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 환영회 및 송별회

바스코 다 가마에서는 실습 첫날에 가지는 환영회, 실습 마지막날 가지는 송별회를 비롯하여 각종 비공식적인 회식자리가 많습니다. 로펌의 변호사님들과의 식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환영회에서는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 및 변호사님들에 대한 소개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명함문화가 발달하여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거의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 미리 한자이름을 병기한 명함을 준비해두라는 조언을 들은 터라 어색하지 않게 환영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을 방문한 후에 가지는 각종 식사자리와 회식자리가 있는데 이 때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와 서비스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Ⅲ. 마치며

2주간의 여정을 정신없이 소화하고 보니 실무실습 기간동안 일본의 영화, 드라마, 음반, 스포츠, 만화, 미디어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비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먼트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 등을 알고 나니 관련공부를 할 때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실무실습의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실무수습 외적으로도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선뜻 지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차별화된 무언가를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법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망설임없이 지원을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수습에서 특히 와세다로스쿨생인 안유향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주 내내 어려운 통역을 도와주어 그녀덕분에 수월히 실무수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와세다로스쿨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들을 위해 와세다 대학교 캠퍼스를 친절히 안내해 주어서 그녀와 함께 좋은 추억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변호사가 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그녀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